

이웃종교 RELIGION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부산서

개신교계 2013년 확정 "125년 한국교회 역사 최대 경사"

세계 개신교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개신교계는 2013년에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125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최대 경사 중 하나"라며 기뻐했다.

WCC총회는 2013년 9~12월 중에 개최되는데 총회 날짜는 차기 WCC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다.

1948년 출범한 WCC는 110개국 349개 교회와 교단을 포괄해 선교와 봉사, 평화와 함께 활동하는 교회 협의체다. 로마 가톨릭을 제외한 대다수 개신교회와 정교

회, 성공회 등 전 세계 5억6000만 기독교인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기독교계 '유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WCC가 7년마다 개최하는 총회는 정의, 평화, 인권 등 WCC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에큐메니칼(교회 일치와 연합) 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자리로 '기독교 올림픽'으로 불린다.

총회가 진행되는 10일간 전 세계 교회·교단 대표단과 옵서버, 자원봉사자, 언론인 등을 포함해 5000~6000여 명이 한국을 찾게 된다. 또 2013년 총회가 루터교 세계연맹(LWF), 세계개혁신교회연맹(WARC) 총회와 함께 개최되면 참가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앞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최고 책임자이자 노르웨이 출신 올라프 F.트비트 목사(49)가 선출됐다.

WCC는 2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WCC 사무국 총책임자인 사무총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올라프 목사를 선출했다.

WCC 사무총장은 '개신교의 교황' '개신교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내년 1월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은은 기자

목숨으로 신앙 지킨 순교자 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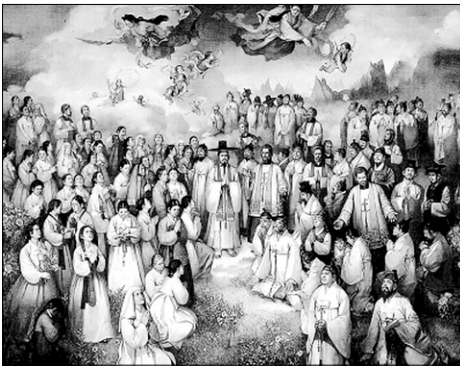
한국천주교회 9월 '순교자 성월'... '화해 나눔 축제' 등 행사 다채

한국천주교회가 정한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아 각 교구 다양한 신심 행사를 마련했다.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한국 천주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정하고 103위 순교성인들을 비롯해 성인 반열에 오르지 못한 무명 순교자들을 기리고 있다.

1925년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위가 시복되자 한국천주교회는 복자들이 가장 많이 순교했던 9월 26일을 '한국 순교복자 대축일'로 정했다. 복자들을 현양하고 공경하는 신심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9월을 '복자성월'로 지내게 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는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을 맞아 9월 19일 오전 11시, 여의도 광장에서 '화해



한국의 103위 순교성인.

의 중' 125위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삼랑진에 있는 김범우(토마스) 묘-죽림굴-살타-연양 성당-부산 온천대 순교자 기념성당까지 123km 구간을 이어 달린다.

가톨릭신문사는 9월 12일 서울 새남터 성당에서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 25주년을 맞아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기리며 순교의 참 뜻을 되새기는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한다.

한편 103위 순교자를 소개하는 책들도 나오고 있다. 1984년 순교자 103위가 성인으로 시성되기까지 로마에서 시성 청원인으로 활약했던 윤민구 신부(순골성지 전담신부)는 당시의 기록을 담은 <특별한 한국천주교회사-103위 성인의 탄생 이야기>(푸른역사 펴냄)를 내놓았다.

이은은 기자

중생구제 발원하니 상담이 '해답'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상담대학·대학원 개강... 2010년 전문가 과정 개설

자살, 이혼 등 개인적 비극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때, 중생구제를 발원하며 출가한 스님들이 직접 상담자로 나서겠다는 배움의 열기를 더하고 있다.

불교계는 그동안 우울증·자살 등의 사회문제들을 제기자들이 주축이 돼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해왔다. 승려전문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에 상담학과가 개설된 것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태원)는 지난 5월 불교상담대학·대학원을 개설해 9월 7일 2학기 개강을 맞았다.

5월 입학한 55명의 스님들은 지난 학기 △불교와 상담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개론 등의 심리학 기초과목을 배웠다. 2학기에는 △초기불교수행과 상담 △특수분야상담을 교육받게 된다.

불교상담대학·대학원 학생 5인 스님은 "이웃종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상담심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인력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불교계에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상담심리의 수요가 늘고 있는데 불교계는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중앙승가대는 상담대학 설립을 통해 △전문 '불교상담' 승가 인재



승려전문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는 지난 5월 불교상담대학·대학원을 개설하고 전문적인 불교상담심리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입학식 모습.

의 배출 △불교상담을 중심으로 한 교육 기회 제공 △불교상담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토대 마련 △불교상담을 통한 현장지원 강화 및 포교역량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상담대학·대학원은 수강대상 학인스님에게 졸업 특전을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해 적극 참여를 꾀하고 있다. 불교상담대학은 졸업자에게 불교상담심리사 2급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대학원 졸업자는 불교상담심리사 1급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대학·대학원 졸업자 중 자격증을 취득한 스님들은 △교계 각종 상임기관에서 상담원으로 활동 자격 부여 △불교상담대학 세미나 참가 △교계 내외의 상담행정 업무 등의

특전을 받게 된다. 불교상담대학이 일반상담 심리학과 차별화된 점은 불교를 토대로 상담심리를 배우기 때문에 경전수업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빠사나, 자비명상과 요가, 만다라, 선무도 등을 토대로 하는 표현예술 치료를 가르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지향한다.

불교상담대학 교육국장 도영 스님은 "첫 입학한 55명의 학인 스님들 다수가 일반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했다. 이 가운데는 석·박사 학위를 가진 스님들도 있다"며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기에 상담 심리를 할 때에도 폭넓은 시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다"고 일반 상담심리사와의 차별성을 설명했다.

교육과정은 앞서 설명한 과목 외에도 △유식학과 상담 △표현예술 치료 △인성 및 상담실제 △명상과 심리치료 △가족 상담치료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강의를 진행한다.

교수진들은 현 불교상담이외 일반상담도 함께 공부한 박사출신이 대부분이며 모두 일반대학에서 강의와 교수 및 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승가대는 2010년 전문가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전문가 과정을 졸업하는 스님들은 △불교 상담심리 전문 슈퍼바이저 자격 부여 △자격 전문가는 불교상담심리 연구 및 개발 평가 등의 특권이 주어진다.

이처럼 승가대학이 전문·체계화된 불교상담대학을 개설해 스님들을 양성·배출하는 좋은 취지를 갖고 출발했지만 어려움 또한 있다. 바로 학인 스님들의 학비지원 문제다.

도영 스님은 "군·경장상담 쪽에는 개신교계가 대부분 포진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담을 해야하는데 많은 스님들이 상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체계화된 자격증이 없어 투입이 어렵다"며 "이러한 스님들 중 공부를 하고 싶어 하나 급전직 문제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스님들이 많다"고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은은 기자 bohnyung@buddhapia.com

"매주 수요일 마다 공양해요"

한국불교대학, 어르신 무료급식

경제위기와 고령화가 맞물리면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복지재단(대표이사 해봉)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9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12시에 신천 회



한국불교대학 복지재단이 9월 2일 진행한 무료급식봉사에는 500여 지역 어르신이 참가했다.

이와 관련, 해봉 스님은 "사회봉사활동에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53)474-8228 이은은 기자·손문철 대구지사장

온가족 다함께 책임기 배우자

구립증산정보도서관, 문화행사 '풍성'

은평구립증산정보도서관(관장 엄무성)이 9월 독서의 계절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도서관은 △창의적 독서 논술 특강 △까만 닭, 얼룩소 △책 마당 △올바른 투자원칙과 방향성에 관한 경제특강 등을 준비했다.

엄무성 관장은 "어린이들의 글쓰기 능력향상과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우도록 준비했다"며 "까만 닭, 얼룩소"는 어린 자녀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논술특강은 9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가족연구 '까만 닭, 얼룩소'는 9월 13일 오후 7시, '책 마당'은 9월 19일, 경제특강은 9월 24일에 열린다.

한편 도서관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영어동화방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님이 울동과 함께 노래로 익히고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영어와 친숙해지는 놀이 모임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02)307-6030

이은은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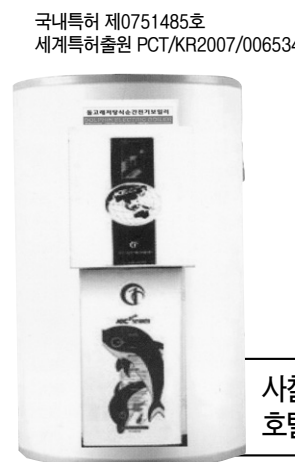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